

대행 스님

모든 걸 자유자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림 · 최주현

지난번에 이 땅, 지리에 대해서 얘기를 다 끝마치지 못한 채 서두만 얘기했습니다. 이 지리도 인간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부동한 자세의 영원한 자기의 일심이 있기 이전 바로 참 자기가 있지만 저런 산과 같은 것도 이 전체를 비유해서 이름을 짓자면 바로 지월봉 또는 풍월봉 또는 불봉 할 때 불월봉, 또는 이 네 가지에 관한 건이 바로 밝아서 오월봉이라고 한다면 불월봉, 풍월봉, 지월봉 이 자체가 한데 합쳐진 오월봉입니다. 이 오월봉은 그대로 밝아져서 있지마는 이 움죽거림은, 또 거기에 움죽거리는 활용에 의해서 뒷받침을 하는 것은, 상대적 원리로서 뒷받침이 돼 돌아가는 원리는 상대가 아니라면 그대로 있거든.

그러나 상대가 있느니만큼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아주 활달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같이, 즉 촉각과 시각, 감각 그런 세 가지에 의해서 상대성 원리로서 움죽거리게끔 돼 있거든. 거기에는 또 근본적으로 같이 수반돼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상대성 원리가, 똑같이 그것이 있어야만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된 것이 바로 산에도 청각이나 또는 백각, 지각, 식각, 감각 이러한 것이 다 수반돼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월봉…, 아까 얘기하다 빠졌구먼. 내 이렇게 빠뜨린다고. 아까 오월봉이라고 할 때 수월봉을 빠뜨렸어, 그 중요한 걸.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

지난번에 인간의 오신통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금 시쳇말로 망원경이니 뭐, 이런 얘기했죠? 그러한 감각적인 어떠한 것이 거기에 수반이 된다면 굴리는 데는 오신통이 바로 거기에 포함돼서 돌아간다. 그래서 책정기라고 하는 것은 누진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반이 돼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법망에 대한 통신력에 의해서 그 모든 상대성의 원리와 삼태성의 원리, 삼심의 원리, 육신의 원리, 칠각의 원리가 다 수반됨으로써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의 구정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보배로 이루느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공부해서 마음으로 알지만 혀를 놀려서 말로 한다면, 그것이 속으로는 알지만 만약에 안다고 해서 겉으로 아는 말을 한다면 적을 두게 되고 또 담을 쌓게 되고, 건방진 게 되고 상대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혀를 놀려서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는 것이 삿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삿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는 것은 그대로 알고 있되 말하는 것을 삿되게 말을 하면 삿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려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산맥이나 인간의 세포의 맥이나, 이 속맥이나 겉맥이나 똑같이 흘러 도는 그 자체는 역시 마찬가집니다. 땅이라고 해서 맥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조선만 하더라도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는 큰사람이 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이나 북쪽이나, 예를 들어서 어느 산맥에 있어서 관악산에는 관악산대로 목에다가 딱 봉을 박았고 아래에는 겨드랑이에다 박았는데 아, 겨드랑이에 박은 건 저기 청계산을 말하고, 그러니까 관악산에다가는 목에다 박고서 이 네 귀퉁이를 다 박아 재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여섯 개가 되고 저기는 두 개가 되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산이다, 좀 더 날 데가 있다 하는 산은 봉우리마다 봉을 박았어요. 그래서 산이 흘러 내려오는 맥을 끊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삼 년 전 얘기지만 올까지 끝이 났다고 보지요. 삼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한 맥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까지 생각해 본 예가 없어요. 우정 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서. 근데 삼 년 전에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이 통신망에 의해서, 법망이라고 하죠? 이걸 법망이라고 합니다. 왜? 통신망에 의해서 이 무슨 일에 대해 한생각을 했다 하면 그게 법이 되기 때문에 법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통신망을 좇아서 단계 단계 짓다가 보니까 그것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혈맥에 의해서. 이것은 안다 모른다 이러한 말을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다, 안 한다 말이 없이 스님네들 삼백 명이 출전해서 삼 년을, 올까지 마지막 끝을 낸 겁니다. 다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8 · 15 해방이 되고 그때에 논란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그 후부터. 누구나가 생각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모르는 일이고 생각을 곰곰이 음미해 보고 좀 더 그거를 숭상해 본다면 어딘가 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깁니다. 생각을 안 하면 아예 모르고. 우리가 또 거론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없이, 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목석같은 사람은 부처 될 자격도 없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처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될 자격이 있지 아니, 분별도 못 하고 움죽거리지도 못하고 생각도 내지 못하고 그러는데 무슨 부처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통신망에 의해서 그런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는 아주 컸더라는 얘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당당히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의 어깨에다가 만약에 쇠꼬치를 박아 놓는다면 사람이 힘을 못 쓰듯이, 그와 같이 힘을 못 썼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님네들 삼백 명이 출전이 돼서 삼 년을 두고 그것을 낱낱이 뽑아 버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어느 스님네들이 그렇게 했느냐고 할 테죠. 하지만 스님네들이 꼭 이런 걸 한다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으로부터 그 스님네들은 법신으로서 또는 화신으로서, 전부 보살들이 등장을 해서 삼 년을 두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삼 년이 사흘도 될 수 있고 삼 초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맥이라 그러는 것도 사람과 같아서 즉 혈맥이다 이겁니다.

또 얘기 한마디 할까요? 옛날에 어느 나라에 국록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친구가 아주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다섯 분이 다 국록을 먹으면서 아주 절친했거든요. 그렇게 나라의 국록을 먹고 있는 동안에 보물도 있겠지마는 유족에게 남길 수 있는, 선대적부터 내려오던 유물이 그득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대로 그렇게 내려오던 집이니까. 근데 그 다섯 분이 말입니다, 하루는 어디를, 우리네 지금 말로 한다면 산책을 갔습니다. 가마를 타고 산책을 가서 어느 정자에서 놀다가 내려오는데, 하인들도 모두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에 뭐가 툭 차였습니다. 보니까 해골이었어요. "얘, 아무개야!" "예." "이 해골이 이렇게 굴러다니니 저기다가 묻어 주고 가자. 이게 누구의 해골인지 모르니 이것을 묻어 주고 가야지, 어찌 사람의 눈으로 보고서 묻어 주지를 않고 가겠느냐." 하고 묻어 주고 인제 갔단 말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일이 생긴 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야, 이쪽 친구의 유물을 이쪽 친구 집에다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난데없이 이 친구가 그 집을 가고 싶어서 가서는 밤이면 몰래 그걸 가져오는 거야. 이쪽 친구는 몰래 또 이쪽 집에 와서 가져가는 거야. 서로 이러다 보니깐 뒤죽박죽이 된 거야. 그런데 정신이 들고 보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이러거든.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을 그러니까 나라에까지 고해져서 알았거든. 불러다가 "왜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느냐?" 하니까 "오다가 해골을 묻어 주고부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파 버려라."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런데 그날 저녁 다섯 사람 꿈에 아주 키가 부쩍 크고 도둑놈같이 생긴 흔백이 나타나서 "살려 주십시오. 저는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이거야, 응? "세상에 자라면서 남의 집 가서 좋은 물건 가져오는 것밖에는 배운 게 없어서 선생님들이 고마워서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해 드리려고 그런 걸 그냥 갖다 드리려고 가져온 것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언제 선생님들의 그 은덕을 갚아 드리리까." 그런데 그 다섯 집에서만이 아니라 동네의 유물이라는 건 다 훔쳐오는 거라. 그러니 그 다섯 사람의 면목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섯 사람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됐죠. 웬만큼 산다는 집, 선비 집에 가서 다 훔쳐다가 그 집에 갖다

☞ 22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